

하동세계차엑스포 공식 인정상품 선정

만수가만든차 3종·청석골 감로다원 5종



1, 2 하동 화개면 정금마을 차밭 및 녹차

경남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는 하동의 명품 야생차 제품 8종을 '2023 하동세계차 엑스포' 공식 인정상품으로 지정했다.

만수가만든차의 만수가만든차(녹차), 고뿌레(홍차), 하동차편 떡차와 청석골 감로다원의 감로향(특우전·우전), 다시봄차(세작), 골짜차(홍차), 감로백차 등이다.

만수가만든차는 천혜의 지리산 화개골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한 소엽종 차잎으로 만들며 야생차 특유의 깊은 맛을 낸다. 고뿌레(홍차)는 과거 감기에 걸렸을 때 약 대신 먹었던 차에서 유래한 것으로 독특한 개성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2021년 대한민국 식품명인(작설차 제조 분야)'으로 선정된 청석골 감로다원은 차 농사를 평생 기업으로 삼고 4대째 전통 수제 차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차 예절 특강부터 차 명상 체험 등 차 문화 전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인정상품 사업자는 소정의 회장 사용료를 내고 계약일로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엑스포 로고를 활용한 디자인 제작 판매가 허용되고 엑스포 행사장 내 임대 부스 우선 사용권 등을 받는다.

엑스포 공식 인정상품 신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엑스포조직위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엑스포조직위나 경남도·하동군 홈페이지에서 참고하면 된다.

신창열 사무처장은 "엑스포 인정상품 선정은 화개골 명품 야생차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인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내 제다업체의 고품질 차를 인정상품으로 선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와 하동군이 공동 주최하고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가 주관하는 하동세계차엑스포는 차 분야 첫 정부 승인 국제 행사다.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를 주제로 내년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하동 스포츠파크와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장 등지에서 열린다. ⑦



2